

호남서 몰표받은 민주당, 첫 시험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5월7일 우선협상지역 발표...광주·전남 당선인 18명 대부분 초선

21대 총선에서 몰표를 받으며 당선의 영예를 안은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첫 시험대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이 될 전망이다.

비록 21대 국회 임기 시작은 5월 30일이지만 지역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을 먼저 치러서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은 국비 8000억원 등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2027년까지 방사광 가속기와 부속시설을 설립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 일까지 방사광 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자체는 21일까지 지질조사(시·군·읍·진동 등) 결과를,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5월7일 우선협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를 비롯해 전국 4개 광역지자체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호남지역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됐다.

유치전이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18명 당선인 대다수가 초선인 상황에서 이번 유치전에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잘 아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당선인들에게 보내는 축하인사를 통해

적 유치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추진단은 호남권 대학교 총장, 교수, 기업·기관 대표, 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정치인, 저명인사, 언론인, 향우, 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도민 12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나주시가 중심이 되어 서울 용산역, 광주송정역에서 방사광가속기 호남유치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호남권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지역최대 현안으로 꼽힌다"며 "당선자들이 방사광가속기 호남유치 등 협연해결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장 광주시도 지난 17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지역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국비 건의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방사광 가속기 유치운동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시민 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 추진단은 호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방사광 가속기 나주 구축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전 국민

허성은 기자



한국노총 만난 광주지역 당선인들 1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세무기장·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기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10066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변수진 (770421-2663219)
최후주소: 전남 여수시 하멜로 55-7(종화동)

위 망 변수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4월 20일

공고인: 김대성
주 소: 전남 순천시 오천4길 21, 105동 1401호 (오천동, 골드 클래스)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4월 9일
공고기간: 2020.4.20~2020.6.20.



동구, 이제는 정책도 주민이 직접 디자인한다

광주 동구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2020년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디자인단이란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민간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간전문가와 주민 등 국민디자인단 20여명이 참석해 국민디자인단 소개와 역할 등에 대한 기본교육과 향후 국민디자인단 추진과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안심마스크 제작에 온힘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조만호)가 한국전력공사와 (사)세상을 이어가는 끈으로부터 재료비(4,000매 분량)를 후원 받아 안심마스크 제작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에 진행되는 안심마스크 제작은 상무2동 자원봉사캠프의 자원봉사자 15명이 의기투합하여 추진된다.

제작되는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로 4,000매가 제작될 계획이며,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몽골의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남구, 식료품 꾸러미로 취약계층 어루만진다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먹거리가 담긴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남구는 17일 "최근 IBK 기업은행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업 아이디어로 제출한 '참 좋은 사랑의 밤차' 사업이 선정돼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가정에 제공하는 식료품 꾸러미는 총 464개이다.

시금치와 상추,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통밀국수, 구운 김, 라면, 계란 등 9가지 먹거리가 담겼다. 식료품 꾸러미는 이날부터 다음달 8 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이다.

북구, 착한소비 프로젝트.. 소상공인 돋기 팔 걷어

광주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돋기기에 팔을 걷었다.

북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착한소비 프로젝트, 투게더 북구' 운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소비 프로젝트는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돋기 위해 전 부서와 공직자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외식업 △용역·서비스업 △화훼업 △지역화폐 △제도개선 △민간희선 등 6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광산구 야호센터, 온라인으로 청소년 놀이 지원

광주 광산구는 오는 21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청소년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CONNECT(커넥트)-야호'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애호센터 입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불안·무료감 등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연결'을 의미하는 프로그램명처럼 애호센터는 센터이용 청소년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다양한 놀이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11 종의 관련 놀이꾸러미 50개는 센터에 신청하고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발려준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르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